



무설탕 건강음료가 뜬다

상하이지사

무설탕 건강음료 춘추전국시대

- 중국의 무설탕 건강음료들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. 9년의 긴 홍보 기간을 거쳐 올초부터 음료시장의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는 무설탕 건강음료들은 트렌드를 반영한 신제품의 출시로 소비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.
- 중국 음료회사인 비타(ViTa)에서는 녹차와 현미차 2가지 맛의 무설탕 차음료를 출시했고, 코카콜라는 차음료 분야에서 참패를 겪어온 아픈 경험을 딛고 일어나 올 4월에 무설탕 차 음료 '춘차셔(淳茶舍)' 시리즈를 내놓았다. 또한 무설탕 음료를 주력제품으로 운영해 온 일본기업 이토엔(伊藤園)에서는 녹차나 우롱차 같은 고유 제품 출시 경험을 바탕으로 철관음차 음료를 선보이고 있다.

1. 비타 무설탕 차음료
2. 코카콜라 차음료(淳茶舍)
3. 스프라이트 섬유+
4. 디논 과일차 티엔팡예탄(天方叶谈)

탄산음료도 건강한 기능성 식품으로 변신

- 올해 코카콜라에서 중국시장에 출시한 가장 주목받는 제품은 '스프라이트 섬유+'다. 섬유는 '난소화성덱스트린(resistant dextrin)'에서 나온 용어인데, 난소화성덱스트린은 옥수수 또는 밀에서 추출해 만든 식품원료로, 마시면 포만감을 주게 된다.



1

- 난소화성덱스트린을 첨가한 콜라와 스프라이트는 일본에서 먼저 출시된 후 큰 인기를 누려, 대중성을 이미 인증받은 제품이다. 포만감을 주는 원료를 사용한 다이어트 음료라는 메시지로 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중이고 소비자들 역시 긍정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.
- 이 제품은 Family Mart에서 5위안(500ml)에 판매되고 있어, 일반 스프라이트의 가격인 3.8위안(600ml)보다 다소 높은 편이지만 다이어트를 원하는 소비자들은 구매를 주저하지 않고 있다.
- 이외에도 다논에서 출시한 과일차 음료 티엔팡예탄(天方叶谈), 이토엔에서 출시한 진한 우롱차 역시 난소화성덱스트린을 첨가한 음료로, 다수 대기업이 난소화성덱스트린을 함유한 신제품을 앞다투어 출시중이라 이 원료가 미래의 식품트렌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.

대세는 역시 건강한 식품원료

- 입소스(Ipsos)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해 73%의 중국소비자가 무설탕 음료를 마셔본 경험이 있고, 지방과 열량보다 무설탕 또는 저당의 건강한 식품 및 음료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.
- 개여주 열매, 첨국(甜叶菊), 에리스리톨(Erythritol) 및 이눌린(inulin) 등 건강한 감미료가 설탕대체 첨가물로 뜨고 있는 것도 건강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을 입증하는 한 예다.
- 중국시장의 트렌드에 따라 한국기업에서 무설탕 또는 저당의 식품·음료 제품을 중국시장에 출시한다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

2



3



4